

# Letter from Blacksburg

##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



2023년 가을  
레마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대표를 맡고 있는 산업공학 (ISE) 박사과정 2년차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가을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현재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참석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소 독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이었지만, 21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뜨거운 20대를 보내고 캠퍼스 사역과 평신도 사역에 헌신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2-3년 가량을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두루선교회)에서 풀타임 간사로 섬겼었고 한 때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교역자 못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갈망하는 제대로 된 평신도 사역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모두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미국에 박사과정을 진학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버지니아텍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석사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Ph.D. 과정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의 신앙적인 뜻이 확고함을 아시고, 하지만 제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저를 서포트 해 주시던 모교의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님도 신앙이 있으셨기에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제가 유학을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시면서 다른 교수님과 협업도 소개해 주셨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학업과 연구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버지니아텍에 부푼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자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었기에 이번에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는 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몇 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계셨지만 유학생이 대부분이었고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양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혹은 이미 지쳐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나 신앙생활의 마음가짐도 저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교회를 옮기는 등의 옵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전초 기지이며 미약하든 아니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성경적인,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미약한 곳일수록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던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블랙스버그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미약했던 곳이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Rhema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대학원생과 미혼 청년들이 위주인데, 대학원생의 특성상 자신의 학업과 연구가 1순위이며 이곳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많은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 분위기가 좋고 따뜻한 곳, 재미있는 곳이 되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애썼습니다. 식사 교제 모임, 큐티 기도 모임을 만들고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 더 대화를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모두가 작은 섬김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였습니다. 이전의 분위기가 되도록 섬김을 피해가려는 분위기였다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작은 섬김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역할을 주었습니다. 임동진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청년들이 각자의 분량에 맞는 100%를 해본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적극성이 높아져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도 레마 청년부가 활기차고 기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벧후 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 가라”

이번 Spring에는 조금 더 한 스텝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 중이지만 청년순을 3-4개 가량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부에는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유학 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섬기며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받아 보시는 분들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애쓰시는 임동진 담임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블랙스버그에서 이현우 드림





2023년 12월 3일  
성탄 칸타타를 마치고



2023년 12월 26일  
목사님 댁에서 potluck

#### 교회 Youtube channel 개설

@koreanbaptistchurchofblack3581 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 헌금/재정지원

<https://kbcb.us/paypal-헌금>  
(Paypal 미국 계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국 교회 주소: 550 North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Mailing address: PO Box 10185  
Blacksburg, VA 24062

#### 기도제목

- 버지니아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
- 몸이 아픈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 모이는 예배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더 잘 모이게 하소서
- 올해에도 우리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 Upcoming Events

1/16: Virginia Tech, Radford 개강  
2/2-4: 버지니아 청년 연합 수련회  
매주 목요일 21:00-21:40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